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4월 14일(목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협치인권담당관	담 당 자 • 협치기획팀장 한은희 ☎ 440-3391 • 담당자 박지애 ☎ 440-3394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비영리민간단체 80곳에 공익사업비 11억 지원
- 7개 분야로 구분,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공익활동 증진 -

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80개를 선정하고, 총 11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.

①협치소통, ②평화·인권·시민교육, ③환경자원순환, ④일자리경제도심재생, ⑤해양항공교통, ⑥보건복지안전, ⑦문화관광체육 등 7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올해 사업에는 지난 1~2월 공모기간 동안 모두 119개 단체가 신청했다.

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,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해 3일 간의 심사를 거쳐 80개 지원사업과 각 사업별 지원금액을 결정했다.

특히,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단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0개 사업을 예비후보로 선정해 놓음으로써 사업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극대화했다.

선정결과는 인천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/>, 소통참여-비영리단체-자료실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결정된 지원금액에 맞게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며, 교부받은 보조금은 각종 공익사업에 쓰인다.

한편, 지난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74곳에 9억8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.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추진했던 공익사업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또, 하반기에는 기획서 작성, 회계 교육 등 비영리단체 운영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진행해 단체의 공익사업 역량 강화 및 단체 운영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
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이 사업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”이라며, “비영리민간단체의 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과의 상생·보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비영리 민간단체 컨설팅 사진

< 비영리 민간단체 컨설팅 사진 >

